

『權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Frequency of Citations and Selection
of Authors *Geun-Yeok-Seo-Bo*

김 수 천 (Kim, Su Cho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세 차례의 인물선정 |
| 2. 자료의 형식과 인용문의
출처빈도 | 3.2 추가된 인물선정 |
| 2.1 자료의 형식과 인용문헌 | 3.3 추가된 인물의 특징 |
| 2.2 인용문의 출처빈도 | 4. 맺는말 |
| 3. 인물선정의 기준 | <참고문헌> |

< 초 목 >

일중 김충현은 20세기 근 현대 서예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장이다. 그는 한글과 한문서예에 일가를 이룬 서예가로서의 명성과 함께 서예학습의 길잡이가 되는 많은 교본을 저술하여 한국서예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權域書譜』는 1967년 신아일보에 연재된 글로서 당시 독자층이 많았고 한국서예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최근 들어 이 자료를 아는 사람을 발견하기조차 어렵다. 논자는 연구를 통해 『근역서보』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중의 『근역서보』는 오세창의 『근역서화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작가의 선정과 인용자료 면에서 『근역서화징』을 모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역서보』에 소개된 150명 중에서 34명이 『근역서화징』에 없는 인물이며, 인물의 성향 분석을 통해 이들이 특히 '절의'에 속하는 인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자는 이와 같은 인물선정 성향이 일중의 성장 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방대한 문헌자료와 일중의 독자적인 역사관에 의해 쓰여진 『근역서보』는 부족한 한국서예사를 보완해주고, 문인서예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要語: 근역서보, 근역서화징, 신아일보, 인용자료, 절의

* 본 논문은 2014년 원광대학교 연구지원금을 받아 연구된 것임.

**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예술학과 교수, 원광서예문화연구소 소장(cnlwjd@hanmail.net)

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1일

<ABSTRACT>

Iljung Kim, Chung Hyun is a master who opened a new prospect in the field of the 20th century's modern and contemporary calligraphy. Along with the reputation as a calligrapher with an established name for Korean and Chinese calligraphies, he wrote numerous textbooks that are guides to learn calligraphy, contributing in a significant way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alligraphy. The textbook introduced in this thesis, "*Geun-Yeok-Seo-Bo*" is a piece of writing published in a series *Shina Daily Newsin* 1967 with a huge number of readers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alligraphy. Nevertheless, in recent years, it is even difficult to find anyone who is familiar with this document. Through research, the Author learned that the most critical supporting document to understand "*Geun-Yeok-Seo-Bo*" is "*Geun-Yeok-Seo-Hwa-Jing*," written by Oh, Sye Chang. However, as a result of comparing those two documents, the Author discovered that "*Geun-Yeok-Seo-Bo*" by Iljung does not follow all of the details in "*Geun-Yeok-Seo-Hwa-Jing*" by Oh, Sye Chang, in terms of selection of authors and citations, despite the fact that it is based on "*Geun-Yeok-Seo-Hwa-Jing*". This thesis finds out that 34 among 150 characters introduced in "*Geun-Yeok-Seo-Bo*" do not appear in "*Geun-Yeok-Seo-Hwa-Jing*" and that particularly most of them are belong to "Jeol-Ui (Fidelity)" through analyzing the propensity of those characters. The Author reveals that his tendency to select such characters is closely related to his childhood. Written based on extensive literature materials and Iljung's independent view of history, "*Geun-Yeok-Seo-Bo*" is expected to be a valuable document to fill the gap of the incomplete Korean calligraphy history and to understand Mun-In-Seo-Ye (Writer's calligraphy).

Key words: *Geun-Yeok-Seo-Bo*, *Geun-Yeok-Seo-Hwa-Jing*,
Shina Daily News, citations, Jeol-Ui (Fidelity)

1. 머리말

一中 金忠顯(1921~2006)은 20세기 근 현대 서예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거장이다. 그는 선배인 素筌 孫在馨(1903~1981)과 함께 국전을 주도했으며, 궁체를 현대화하고 훈민정음 판본체에 근거한 고체를 창조하여 한글서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중은 서예가로뿐만 아니라 서예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예학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동방연서회와 일중묵연을 통해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였으며, 1942년 『우리 글씨 쓰는 법』을 시작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발행하였고, 『서예집성』, 『국한서예』, 『일중한글서예』 등 많은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백년 동안 이루어놓은 일중의 행적은 참으로 많다. 그중에는 세상에 알려진 일도 있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도 많다. 여기에서 소개하려는 『權域書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대표적인 자료에 해당될 것이다. 일중이 저술한 『藝에 살다』에 의하면 『權域書譜』는 선생의 생애에서 가장 뜻 깊고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다.

“1967년 나는 신아일보에 權域書譜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근역서보’란 근역이란 우리나라의 별칭이 말해주듯이 우리나라 역사상의 중요한 명필들의 작품과 생애를 설명하면서 서예의 역사를 훑어보는 것이었다. 신라의 김인문, 김생에서 조선조의 안평대군 김추사에 이르는 1백 50인의 명필 이야기를 1백 50회에 걸쳐 연재했는데 이 ‘근역서보’를 집필하면서 나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했고 명필의 필적을 찾기 위해 소장자를 수소문해야 했으며 뚜렷한 유적이 없는 서예가의 이야기를 쓸 때는 무척 애를 먹었다. 그러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150인의 한국 명필을 집대성한 ‘근역서보’는 나의 서예생활 중 가장 뜻 깊고 보람 있는 일중의 하나로 지금도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낼 생각을 갖고 있다.”¹⁾

이와 같이 『權域書譜』는 일중이 살아생전 가장 아끼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자료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자료가

1) 김충현, 『藝에 살다』 (서울: 범우사, 2000), 58-59.

갖는 가치와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다행히 일중 서거 10주년을 한해 앞두고 일중기념사업회에서 『權域書譜』에 대한 해제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중은 서예가일 뿐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학으로 내려오는 한학을 연마하였고, 항일을 한 조부로부터 절의의 정신을 배웠으며, 금석문, 한글고전문학, 한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양을 쌓은 분이었다. 본 논문을 통해 서예의 명인으로만 알려진 일중의 새로운 단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2. 자료의 형식과 인용문의 출처빈도

2.1 자료의 형식과 인용문헌

『權域書譜』는 1967년 신아일보에 칼럼의 형식으로 연재한 글이다. 본래 50회를 연재하기로 되었으나 신문사의 요청으로 50회를 더 신게 되었고, 100회가 끝날 무렵 다시 또 신문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재계약을 맺어 총 150회로 끝을 맺는다. 따라서 『權域書譜』는 처음부터 150회를 계획하고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사정을 모르고 자료를 보면 두서가 없어 보인다.

『權域書譜』는 신라시대로부터 조선말까지의 한국서예의 명가 150명을 소개하고 있으며 작가의 삶, 작품도판, 작품원문을 담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방대한 인용문헌이다. 일중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미 김기승의 『한국서예사』가 출간되었지만²⁾ 일중은 그 책에 근거하지 않고 역사서와 문집을 인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대중에게 서예를 알리는 형식의 글이지만 原典을 인용하면서 내용의 충실한 전달을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무게감이 실린 특수한 칼럼임을 주목하게 한다. 논자는 일중이 『權域書譜』에 담으려고 했던 정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인용한 책을 모두 발췌하였다.

2) 김기승, 『한국서예사』 (서울: 대성출판사, 1966).

東國金石評, 耳溪集, 書鯖, 海東金石總目, 眉叟記言, 金石總攬, 破閑集, 槿域書彙, 大鑛國師碑, 李相國集, 東國文獻畫家編, 高麗史, 牧隱集, 慵齋叢話, 筆苑雜記, 國朝人物考, 圃隱集, 四佳集, 大東韻玉, 海東雜錄, 冶隱集, 八景詩卷, 潛谷舊錄, 華苑雜記, 阮堂集, 東國文獻筆苑編, 燃藜室記述, 文宗實錄, 海東名臣錄, 六臣遺稿, 海東號譜, 文獻備考藝文考, 警修堂集, 晉陽世稿, 國朝寶鑑, 龍泉談寂記, 寄齋雜記, 圓嶠書訣後編, 耳溪集, 栗谷集, 退溪集, 簡易堂集, 稗官雜記, 月沙集, 朝野輯要, 溫裕齋集, 尹宗儀跋, 拙翁集, 東溟集, 澤堂集, 芝峰類說, 龍洲集, 圓嶠書訣, 谿谷集, 於于野談, 孤竹遺稿, 四崖集, 舊忠紆難錄, 震旦人物, 人物考, 米壽記言, 誌狀, 公私見聞錄, 芝村集, 熱河日記, 李參奉集, 白下書帖, 圓嶠書帖, 楓臯集, 樵山襟著, 嚳齋集, 龍飛御天歌, 保閑齋集, 月汀漫錄, 紀年兒覽, 行蹟, 河西集, 兼山集, 西郭雜記, 列聖御製肅宗大王, 成宗實錄, 月沙撰狀, 誌狀輯略, 列聖御製宣祖大王, 竹窓閑話, 龍西集, 通文館志, 松溪各體篆帖, 芝湖集, 近齋集, 外傳, 盍葉記, 星湖僊說, 觀瀾亭帖跋, 臺山集, 謙齋集, 定齋書帖, 三淵集, 月谷集, 壺山外史, 錦衾實記, 晚香齋草千字帖, 晚香齋書帖, 經山集, 豹菴畫帖, 金陵集, 青城集, 並世集, 凌壺集, 丹陵遺稿, 清脾錄, 燕巖集, 歸恩堂集, 內閣日記, 歷代畫史彙傳, 天竹齋劄錄, 菴菴年譜, 茶山畫幀, 訥人書縣額, 宛丘遺集, 石友忘年錄, 堀堂集, 圖書解題, 海鄰尺索, 恩誦堂集, 藝林甲乙錄, 小棠集, 海鄰尺素, 皎亭詩集, 碧梧堂遺稿, 文品案, 槿域書畫徵, 國朝名臣錄, 國朝榜目, 錢牧齋集, 國朝名臣錄, 六臣傳, 世祖實錄·人物誌, 誌狀輯要, 約軒集, 丙辰丁巳錄, 紀年通考, 燃藜室別集, 龍門簡牘, 尤庵撰記, 玄淵集, 八谷集, 簡易堂集, 人物考·人物志, 樊庵集, 崧陽耆舊錄, 朝野輯要, 於于遺稿, 萬姓譜, 名臣考, 大巖集, 松湖墨踏帖, 諡狀, 白谷集, 清陰集, 國朝文科榜目, 詩話彙成, 老洲集, 東國文獻畫家編鹿門集, 閒靜堂集, 澗湖集, 思頻集, 芍玉集, 海藏集, 哲宗實錄, 紅藥樓懷人詩錄, 辛亥吟杜集.

『槿域書譜』에서 인용한 책은 무려 170여 종에 달한다. 『槿域書譜』는 역사, 금석학, 문집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글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인용 자료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졌으므로 한문의 독해 능력이 없으면 글을 쓸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자의 학적인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모으고 인용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자 책과 대조를 하던 중 『槿域書譜』는 위창 오세창(1864~1953)이 저술한 『槿域書畫徵』³⁾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3) 오세창, 『국역 근역서화징』 (서울: 시공사, 1998).

2.2 인용문의 출처빈도

『槿域書譜』의 인용문에 대한 출처빈도를 밝히고자 『槿域書畫徵』과 대조하면서 ‘『槿域書畫徵』의 인용’과 ‘『槿域書畫徵』 외의 인용’으로 나누어 각 인물에 대한 인용문출처빈도를 살펴보았다.

2.2.1 『근역서화정』의 인용(전체인용)

번호	작가	오세창 근역서화정	김충현 근역서보
1	김인문	三國史本傳,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海東金石苑題辭, 耳溪集, 書鯖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耳溪集, 書鯖
2	최치원	三國史本傳, 大同韻玉, 海東雜錄, 大同聯珠詩格, 南冥集, 頭流山志, 芝峰詩話, 海東金石總目, 眉叟記言, 東國金石評	海東金石總目, 眉叟記言
3	석행기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書鯖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書鯖
4	김부식	破閑集, 槿域書彙	破閑集, 槿域書彙
5	이재현	東國文獻書家編, 草露貫珠, 槿域書彙	東國文獻書家編, 槿域書彙
6	이 암	高麗史, 李穡撰杏村墓誌, 牧隱集, 東文選, 慵齋叢話, 四佳集, 筆苑雜記 朝鮮人物考, 大同韻玉,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警修堂集, 草露貫珠, 書鯖, 槿域書彙	高麗史, 牧隱集, 慵齋叢話, 筆苑雜記, 國朝人物考, 書鯖
7	정몽주	東國文獻筆苑編, 圃隱集	東國文獻筆苑編, 圃隱集
8	정도전	東國文獻筆苑編	東國文獻筆苑編
9	성석린	高麗史, 四佳集, 慵齋叢話, 大東韻玉, 海東雜錄,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高麗史, 四佳集, 慵齋叢話, 大東韻玉, 海東雜錄, 海東金石總目
10	석만우	慵齋叢話, 八景詩卷, 東國文獻筆苑編	慵齋叢話, 八景詩卷, 東國文獻筆苑編
11	하 연	筆苑雜記	筆苑雜記
12	박팽년	慵齋叢話, 秋江集, 六臣遺稿, 海東號譜, 東國文獻筆苑編	慵齋叢話, 六臣遺稿
13	이 용	慵齋叢話, 六臣遺稿, 龍泉談寂記, 八景詩卷跋, 佔畢齋頭流錄, 濯纓頭流錄, 海東號譜, 文獻備考藝文考, 圓嶠書訣後編, 嚴漢朋跋, 警修堂集, 阮堂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海東號譜, 文獻備考藝文考, 警修堂集
14	성삼문	慵齋叢話, 東國文獻筆苑編, 草露貫珠, 槿域書彙	東國文獻筆苑編, 槿域書彙
15	강희안	晉陽世稿, 筆苑雜記, 四佳集, 慵齋叢話, 六臣遺稿, 龍泉談寂記, 東文選, 古畫備考, 畫斷,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晉陽世稿, 六臣遺稿, 四佳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번호	작가	오세창 근역서화징	김충현 근역서보
16	정난중	慵齋叢話, 燃藜室記述,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慵齋叢話, 燃藜室記述,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17	성 중	國朝寶鑑, 龍泉談寂記, 燃藜室記述	國朝寶鑑, 龍泉談寂記, 燃藜室記述
18	소세양	海東名臣錄, 國朝人物考, 海東號譜, 海東金石總目	海東名臣錄, 國朝人物考, 海東號譜, 海東金石總目
19	김 구	海東名臣錄, 寄齋雜記, 圓嶠書訣後編, 耳溪集,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寄齋雜記, 圓嶠書訣後編, 耳溪集, 東國文獻筆苑編
20	성수침	海東名臣錄, 退溪集, 栗谷集, 海東號譜, 東儒師友錄,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槿域書彙	海東號譜,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槿域書彙, 栗谷集
21	이 황	海東名臣錄, 退溪集, 河書集, 簡易堂集, 練藜室記述,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退溪集, 河書集, 簡易堂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22	신 씨	栗谷集, 稗官雜記, 月沙集, 朝野輯要, 東溪漫錄, 宋時烈跋, 權尙夏跋, 申夫人畫帖, 海東號譜, 燃藜室別集, 東國文獻畫家編, 尹宗儀跋, 溫裕齋集	栗谷集, 稗官雜記, 月沙集, 朝野輯要, 溫裕齋集, 尹宗儀跋
23	황기로	海東號譜, 練藜室記述, 拙翁集, 汪齋集, 東溟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書齋	海東號譜, 書齋, 拙翁集, 東溟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24	송 인	國朝人物考, 澤堂集, 海東號譜,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澤堂集, 海東號譜,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25	양사언	海東號譜, 東國文獻筆苑編, 龍洲集, 芝峰詩話, 芝峰類說, 惺叟詩話, 澤堂集, 三淵集, 圓嶠書訣, 圓嶠書訣後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書齋	海東號譜, 芝峰類說, 龍洲集, 三淵集, 圓嶠書訣,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26	석유정	谿谷集, 芝峰類說, 海東金石總目	谿谷集, 芝峰類說, 海東金石總目
27	백광훈	海東號譜, 於于野談, 孤竹遺稿, 楓厓集, 月沙集,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海東號譜, 於于野談, 孤竹遺稿, 月沙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28	한 호	月沙集, 中京志, 箕雅, 簡易堂集, 揀竹, 識小錄, 芝峯類說, 圓嶠書訣後編, 白下論書, 玉洞論書, 金陵集, 阮堂集, 東國文獻筆苑編, 東國金石總目	圓嶠書訣後編, 東國金石總目
29	석유정	四崖集, 舊忠紓難錄	四崖集, 舊忠紓難錄
30	김상용	海東名臣錄, 震旦人物, 簡易堂集	海東名臣錄, 震旦人物, 簡易堂集
31	허 목	東國文獻筆苑編, 米壽記言, 耳溪集, 沆瀣集, 海東金石題評, 海東金石總目	米壽記言, 耳溪集, 海東金石總目
32	송준길	東國文獻筆苑編, 國朝人物考,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東國文獻筆苑編, 國朝人物考, 東國金石評
33	김수증	國朝人物考, 震旦人物, 海東號譜, 公私見聞錄, 芝村集, 海東金石總目	震旦人物, 海東號譜, 公私見聞錄, 芝村集
34	윤 순	海東號譜, 白下書帖, 圓嶠書訣後編, 耳溪集, 熱河日記, 阮堂集, 海東金石總目	熱河日記, 耳溪集, 阮堂集, 海東金石總目
35	이광사	李參奉集, 東國文獻筆苑編, 海東號譜, 震彙續考, 白下書帖, 海東金石總目, 圓嶠書帖	李參奉集, 白下書帖, 海東金石總目, 圓嶠書帖

번호	작가	오세창 근역서화징	김충현 근역서보
36	신 위	國朝文科榜目, 警修堂集, 楓阜集, 阮堂集, 畫林新詠	警修堂集, 楓阜集, 阮堂集
37	권돈인	阮堂集, 書鯖	阮堂集, 書鯖
38	김정희	阮堂集, 樵山樓著, 恩誦堂集, 礪齋集	阮堂集, 樵山樓著, 礪齋集
39	이하응	阮堂集	阮堂集
40	인 중	行蹟, 河西集, 兼山集	行蹟, 河西集, 兼山集
41	인 조	燃黎室別集, 西郭雜記, 南溪集, 公私聞見, 列聖御製肅宗大王, 龍洲集, 廳竹畫史補	西郭雜記
42	영 조	列聖御製肅宗大王	列聖御製肅宗大王
43	안 지	慵齋叢話	慵齋叢話
44	윤순거	東國文獻筆苑編, 燃黎室別集, 明齋集, 龍西集, 書鯖,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龍西集, 書鯖,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45	박태보	謙齋集, 東國文獻筆苑編, 燃黎室別集, 定齋書帖, 海東金石總目	謙齋集, 東國文獻筆苑編, 燃黎室別集, 定齋書帖
46	강세황	國朝文科榜目, 海東號譜, 震旦人物, 豹菴書帖, 石北集, 金陵集, 熱河日記, 經山集, 警修堂集, 阮堂集	經山集, 海東號譜, 豹菴書帖, 金陵集, 阮堂集
47	김상숙	海東號譜, 青城集, 丹陵遺稿, 並世集, 海東金石總目	青城集, 丹陵遺稿, 並世集, 海東金石總目
48	이인상	海東號譜, 凌壺集, 丹陵遺稿, 閒靜堂集, 醉庵集, 熱河日記, 淸脾錄, 臺山集, 阮堂集, 松泉筆談, 礪齋集, 書鯖	海東號譜, 凌壺集, 丹陵遺稿, 淸脾錄, 礪齋集, 書鯖
49	박제가	內閣日記, 歷代畫史彙傳, 青城集, 天竹齋剖錄	內閣日記, 歷代畫史彙傳, 青城集, 天竹齋剖錄
50	조광진	斐然箱抄, 枕雨談草, 警修堂集, 阮堂集, 訥人書縣額	訥人書縣額, 警修堂集
51	전 기	壺山外史, 石友忘年錄, 夏園詩稿, 古監畫屏, 古藍尺牘, 藝林甲乙錄, 天竹齋筭錄, 碧梧堂遺稿, 紅藥樓懷人詩錄	壺山外史, 藝林甲乙錄
52	김육진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耳溪集, 原碑旁刻	海東金石總目, 海東金石評, 耳溪集
53	한 수	高麗史, 東文選, 牧隱集, 慵齋叢話,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大同書法	高麗史, 牧隱集, 東文選, 慵齋叢話, 東國金石評
54	이 정	震象續考, 海東號譜, 簡易堂集, 五山集, 國朝詩刪, 揀竹, 識小錄, 月沙集, 石洲集, 東溟集, 燃黎室記述, 熱河日記, 天竹齋筭錄	燃黎室記述, 簡易堂集, 月沙集, 天竹齋剖錄
55	오 준	海東號譜, 燃黎室別集, 東溟集, 詩話彙成, 海東金石總目, 青城集, 東國金石評	海東號譜, 燃黎室記述, 東溟集, 詩話彙成, 青城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56	신관호	阮堂集	阮堂集
57	정학교	紅藥樓懷人詩錄, 辛亥吟杜集	紅藥樓懷人詩錄, 辛亥吟杜集

『權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위에서 보듯이 일중이 쓴 『權域書譜』 중에서 57명에 대한 글은 오세창의 『權域書畫徵』에서 모두 발췌하여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발췌하여 글을 썼다고 하지만 이러한 글을 쓰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첫째, 『權域書畫徵』은 여러 책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씩 발췌하여 소개한 사전 형식의 글이다. 따라서 일중은 『權域書畫徵』에 나열된 글을 참고하여 문맥을 연결 짓고 하나의 이야기로 엮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둘째, 『權域書畫徵』은 1998년 시공사에서 국역되었으므로 일중이 『權域書譜』를 쓸 당시에는 한문으로 된 책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루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2.2.2 『근역서화정』의 인용(부분인용)

번호	작가	오세창 근역서화정	김충현 근역서보
1	최인연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書譜	金石總覽,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書譜
2	석탄연	李之茂撰大鑑國師碑, 破閑集, 補閑集, 李相國集, 圓嶠書訣後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羅麗琳瑯玖, 警修堂集	大鑑國師碑, 李相國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3	성 입	海東名臣錄, 筆苑雜記, 慵齋叢話, 列聖御製世祖大王, 阮堂集,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海東金石評	潛谷舊錄, 華苑雜記, 慵齋叢話, 阮堂集,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4	문 중	龍泉談寂記, 四佳集, 保閑齋集, 慵齋叢話, 月汀漫錄	國朝寶鑑, 龍泉談寂記, 四佳集, 保閑齋集, 慵齋叢話, 月汀漫錄
5	세 중	四佳集	國朝寶鑑, 紀年兒覽, 四佳集
6	선 조	列聖御製宣祖大王, 丁戌錄, 月沙集, 耳溪集, 阮堂集	紀年兒覽, 月沙集, 耳溪集
7	성 혼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月沙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8	이제신	簡易堂集, 海東號譜, 白沙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人物考, 簡易堂集
9	이항복	溪谷集, 白沙集, 於于野談, 聽竹畫史,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誌狀輟略, 溪谷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10	신익성	列聖御製宣祖大王, 清陰集, 澤堂集, 水北遺稿, 箕雅, 國朝人物考, 東國文獻筆苑編, 燃黎室別集, 海東金石總目	人物考, 列聖御製宣祖大王,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11	김현성	海東號譜, 芝峯類說, 竹窓閑話, 揀竹, 月沙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人物考, 海東號譜, 竹窓閑話

번호	작가	오세창 근역서화징	김충현 근역서보
12	김좌명	國朝人物考, 萬姓譜,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人物考, 國朝人物考,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13	김진홍	東國大獻筆苑編, 篆海心鏡, 松溪各體篆帖	東國大獻筆苑編, 通文館志, 松溪各體篆帖
14	조 속	海東號譜, 燃藜室別集, 澤堂集, 芝湖集, 近齋集, 海東金石總目	人物考, 海東號譜, 燃藜室別集, 澤堂集, 芝湖集, 近齋集, 海東金石總目
15	남구만	人物考, 東國文獻書家編, 燃藜室別集, 益葉記	人物考, 東國文獻書家編, 燃藜室別集, 外傳, 益葉記
16	이 우	國朝人物考, 海東號譜, 眉叟記言, 星湖僿說, 觀瀾亭帖跋, 海東金石總目	人物考, 海東號譜, 眉叟記言, 星湖僿說, 觀瀾亭帖跋, 海東金石總目
17	김창협	臺山集	人物考, 臺山集
18	오태주	海東號譜, 列聖御製肅宗大王, 國朝人物考, 月谷集, 海東金石總目	人物考, 海東號譜, 列聖御製肅宗大王, 三淵集, 月谷集, 海東金石總目
19	엄한봉	海東號譜, 錦衾實記, 風謠續選, 晚香齋草千字帖, 晚香齋書帖	壺山外史, 海東號譜, 錦衾實記, 晚香齋草千字帖, 晚香齋書帖
20	박지원	淸脾錄	燕巖集, 淸脾錄
21	이덕무	金陵集	歸恩堂集, 金陵集
22	정약용	茶山書幀	俟菴年譜, 茶山書幀
23	조윤형	東國文獻筆苑編, 海東號譜, 警修堂集, 阮堂集	宛丘遺集, 東國文獻筆苑編, 海東號譜, 警修堂集
24	조희룡	石友忘年錄, 阮堂集, 碧梧堂遺稿, 紅藥樓懷人詩錄	石友忘年錄, 堀堂集, 紅藥樓懷人詩錄
25	이상적	海鄰尺素	圖書解題, 海鄰尺素, 恩誦堂集
26	김석준	阮堂集, 海鄰尺素, 皎亭詩集, 碧梧堂遺稿	小棠集, 海鄰尺素, 皎亭詩集, 碧梧堂遺稿
27	민영익	海上墨林, 檣域書畫徵	文品案, 檣域書畫徵
28	권 근	東國文獻筆苑編	高麗史, 海東名臣錄, 東國文獻筆苑編
29	신 장	慵齋叢話, 京都雜誌, 觀瀾亭帖, 東國文獻·筆苑編, 阮堂集	人物考, 慵齋叢話, 京都雜誌, 觀瀾亭帖, 國朝榜目·東國文獻·筆苑編, 阮堂集
30	이석형	月沙集, 芝村集	成宗實錄, 月沙集, 芝村集
31	안승선	海東號譜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人物考, 海東號譜
32	이영서	錢牧齋集	榜目, 錢牧齋集, 八景詩卷跋
33	서거정	國朝人物考, 東國文獻筆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人物考, 東國金石評
34	김종직	東國文獻華苑編, 東國文獻書家編	海東名臣錄, 東國文獻華苑編
35	김 정	東國文獻華苑編, 震旦人物, 熱河日記	海東名臣錄, 東國文獻華苑編
36	최수정	丙辰丁巳錄 稗官雜記, 紀年通考, 識小錄, 惺叟詩話, 燃藜室別集	約軒集, 丙辰丁巳錄 稗官雜記, 紀年通考, 燃藜室別集
37	조 옥	海東號譜, 龍門簡牘	海東名臣錄·人物考, 海東號譜, 龍門簡牘
38	김인후	河西集, 燃藜室記述, 象村跋, 古今法帖, 書譜	尤庵撰記, 河西集, 燃藜室記述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번호	작가	오세창 근역서화징	김충현 근역서보
39	이의건	國朝人物考, 東國文獻華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人物考, 東國文獻華苑編, 海東金石總目
40	송익필	澤堂集, 東國文獻華苑編, 槿域書彙	人物考, 澤堂集, 槿域書彙
41	윤근수	海東名臣錄, 海東號譜, 玄淵集, 八谷集, 燃藜室別集, 東國金石評	人物考, 玄淵集, 八谷集,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42	이산해	樊庵集, 漢陰集, 稗官雜記, 東國文獻華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人物考·人物志, 樊庵集, 稗官雜記, 東國文獻華苑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43	차천로	東國文獻筆苑編	崧陽耆舊錄, 東國文獻筆苑編
44	유몽인	於于遺稿	朝野輯要, 燃藜室記述, 於于遺稿
45	이흥주	海東號譜, 萬姓譜, 東國文獻華苑編, 燃藜室記述, 海東金石總目	人物考, 海東號譜, 萬姓譜, 東國文獻華苑編, 燃藜室記述, 海東金石總目
46	정경세	國朝人物考, 名臣考	人物考, 名臣考
47	백진남	國朝人物考, 於于野談, 月沙集, 松湖墨踏帖, 海東號譜	人物考, 大巖集, 於于野談, 月沙集, 松湖墨踏帖, 海東號譜
48	김 유	謚狀, 燃藜室別集, 海東金石總目	海東名臣錄, 謚狀, 燃藜室別集, 海東金石總目
49	조희일	海東號譜, 東國文獻筆苑編	人物考, 海東號譜, 東國文獻筆苑編
50	조 익	同春堂集, 東國文獻書家編, 震集續考	人物考, 同春堂集
51	김광옥	東國文獻筆苑編	人物考, 東國文獻筆苑編
52	윤신지	列聖御製宣祖大王, 國朝人物考, 澤堂集, 白谷集, 三淵集, 海東號譜, 東國文獻筆苑編	人物考, 列聖御製宣祖大王, 國朝人物考, 白谷集, 三淵集, 書鱗
53	김광현	國朝人物考, 海東號譜, 國朝文科榜目, 萬姓譜, 東國文獻筆苑編	人物考, 淸陰集, 海東號譜, 國朝文科榜目, 東國文獻筆苑編
54	이 재	東國文獻筆苑編	老洲集, 東國文獻書家編
55	송문음	海東號譜, 閒靜堂集, 丹陵遺稿, 凌壺集, 漢湖集, 書鱗	鹿門集, 閒靜堂集, 丹陵遺稿, 凌壺集, 漢湖集, 書鱗

위의 인물에 대해 쓴 55편은 『槿域書畫徵』을 부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槿域書畫徵』만으로는 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관계 서적을 보완하여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위의 『槿域書譜』 인용문 아래에 밑줄을 그은 것은 일중이 보완한 책임을 밝히는 표시다. 예를 들어 최인연에 대한 글을 쓸 때는 『金石總覽』을, 석탄연에 대한 글을 쓸 때는 『大鑛國師碑』를, 세종에 대한 글을 쓸 때는 『國朝寶鑑』, 『紀年兒覽』을 보완하여 글을 만들어나갔음을 알 수 있다.

2.2.3 『근역서화정』 외의 인용

번호	작가	오세장 근역서화정	김충현 근역서보
1	김 생	三國史本傳, 破閑集, 理想國集, 謾聞瑣錄, 東國輿地勝覽, 慵齋叢話, 東書堂集古帖跋, 退溪集, 果齋集, 眉叟記言, 月窓閑話, 原碑旁刻拓本, 耳溪集, 藥泉集, 青城集, 圓嶠書訣後編, 晝永編, 海東金石總目, 東國金石評, 三韓金石錄, 書鯖	
2	이 색		高麗史
3	길 재		高麗史, 冶隱集
4	원천석		燃藜室記述, 金石總覽
5	황 희		文宗實錄
6	김종서		海東名臣錄
7	김상헌		人物考
8	송시열		誌狀
9	태 조		龍飛御天歌, 高麗史
10	세 조		國朝寶鑑
11	효 중		
12	현 중		
13	숙 중		
14	정 조		
15	현 중		
16	정인지		成宗實錄
17	김시습	梅月堂集, 海東名臣錄, 栗谷集, 眉叟記言, 嶺南野言, 定齋集	燃藜室記述
18	이 이	海東名臣錄	月沙撰狀
19	유성룡		誌狀輯略, 海東名臣錄
20	이순신		誌狀輯略
21	윤두표		人物考
22	윤용구		
23	맹사성		國朝名臣錄
24	신숙주		人物考, 成宗實錄
25	최 향		成宗實錄
26	하위지		國朝名臣錄
27	이 개	東國文獻華苑編	六臣傳, 列星御製·肅宗大王, 慵齋叢話
28	김수온		世祖實錄·人物誌
29	성 현		海東名臣錄
30	남효온		誌狀輯略, 燃藜室記述

『權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번호	작가	오세창 근역서화징	김충현 근역서보
31	이현보		海東名臣錄
32	조광조		誌狀輯要
33	서경덕		人物考, 海東名臣錄
34	권 울		人物考
35	조 현		誌狀輯略
36	이정구		誌狀輯略, 海東名臣錄
37	김수항		人物考
38	김병주		思類集, 芍玉集, 海藏集, 哲宗實錄

150명 중에서 38명은 『權域書畫徵』을 인용하지 않았다. 김생, 김시습, 이이, 이개는 『權域書畫徵』에 인용문이 있는데도 인용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34명은 『權域書畫徵』에 실리지 않는 인물들이었으므로 스스로 자료를 찾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용을 하여 문장을 쓴 것과는 달리 김생, 효종, 현종, 숙종, 정조, 현종, 윤용구는 인용문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3. 인물선정의 기준

일중은 150명의 인물을 어떤 기준을 세워 선정하였을까. 『權域書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물의 선정기준은 “서예의 명가, 도학, 문장, 절의, 훈업”이다. 인물을 선정함에 있어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다 해당하는 인물도 있겠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일중이 선정한 인물을 보면 그의 선정기준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3.1 세 차례의 인물선정

3.1.1 1차 선정(50명)

번호	성명	시대	글에 대한 표제어
1	김인문	통일신라	雄渾한 氣象과 精鍊된 技工 太宗武烈王碑는 逸品
2	김 생	통일신라	八十老益壯…入神의 境에 王羲之의 妙筆로 錯覺도
3	최치원	통일신라	山水찾아 周遊隱遁의 孤高 唐書藝文志로 一舉에 文名
4	최인연	통일신라	新羅名族…三崔의 한분 典雅한 筆法 巧妙한 맛
5	석행기	통일신라	雄渾한 鳳琳寺塔碑 新羅末 代表的傑作
6	김부식	고 려	豪健하고 古雅한 文氣 舉識과 文才 宋에까지
7	석탄연	고 려	高談한 詩格…宋人들이 다뤄 글씨請託
8	이제현	고 려	當代 詩書畫의 三絶 飄逸한 草書로 한 멋
9	이 암	고 려	簡古한 詩 絶妙한 書 子昂과 相敵한 筆勢
10	정몽주	고 려	忠孝大節의 一生 豪放·峻潔한 詩文
11	정도전	고 려	李氏朝의 開國功臣 글씨로 많은 門下生
12	성석린	고 려	妙健한 眞書와 草書 王羲之의 筆法 닮아
13	이 색	고 려	詩文에 幅넓은 識見 名聲 明에까지 떨쳐
14	길 재	고 려	高風과 忠節의 生涯 晩年을 後學에 바쳐
15	석만우	고 려	通達한 內外經典 儒釋士林의 師表
16	성 입	조선초기	넓은 器度·精博한 識見 律詩에 더욱 깊은 造詣
17	하 연	조선초기	毅然·簡古한 性品 詩 읊기로 조용한 老後
18	원천석	조선초기	글씨에 감도는 文氣 王羲之의 筆法이어
19	황 희	조선초기	寬厚·沈重한 性格 政丞 24년의 名聲
20	김종서	조선초기	글씨에 넘치는 將氣 風采·時代性 엿보여
21	박팽년	조선초기	經學·文章 모두 能熟 筆法은 鍾王 本받아
22	이 용	조선초기	詩文·畫圖 잘하고 書法은 當代第一
23	성삼문	조선초기	世祖의 極刑에도 自若 곧은 性品 放浪도 즐겨
24	강희안	조선초기	넘친 大人君子의 風 三絶로 獨步的 位置
25	정난중	조선초기	몸에 밴 文武의 才 圓覺寺碑는 逸品
26	성 종	조선초기	嫵媚·端重한 筆法 性理學에도 造詣
27	소세양	조선초기	山椒水涯의 老年 文章·筆法 뛰어난
28	김 구	조선초기	韻律과 藝術에 能通 鍾王의 書體로 一家
29	성수침	조선초기	雄建·蒼古한 筆法 運筆맨 風雨 같아
30	이 황	조선초기	端重·迥勁한 글씨 草書도 正을 따라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번호	성명	시대	글에 대한 표제어
31	신 씨	조선초기	萬事に 精妙한 솜씨 葡萄와 山水는 絶妙
32	황기로	조선초기	變化있는 豪爽한 글씨 當代의 草聖으로 揚名
33	송 인	조선초기	詩文에 바른 法道 吳興의 글씨 模倣
34	양사언	조선초기	清雅한 詩 奇古한 筆法 曠世의 逸才로 받들어
35	석휴정	조선초기	높은 行실에 嚴한 律 筆跡에 韻致 갖들여
36	백광훈	조선초기	4傑·8文章의 하나 詩와 글은 湖南제일
37	한 호	조선초기	天下의 韓石峯으로 中國까지 이름 날려
38	석유정	조선초기	詩文에 능한 義僧 特히 眞草를 잘써
39	김상용	조선중기	淳厚謙愼한 性品 名畫·古蹟을 즐겨
40	김상헌	조선중기	淸의 불모로 슬픈 老年 遺蹟있는 곳마다 書院
41	허 목	조선중기	閎深·簡潔한 文章 古文·篆體로 一家
42	송준길	조선중기	純明溫平한 性品 孝宗의 寵愛받아
43	송시열	조선중기	一生을 朱子에 專念 文集百餘卷을 남겨
44	김수증	조선중기	文史와 書畫로 自適 篆書·隸書에 빼어나
45	윤 순	조선후기	구름이 지나가듯 一點一劃이 妙絶
46	이광사	조선후기	眞·草·篆·隸가 一貫 書道中興의 旗手로
47	신 위	조선후기	奇妙·淸節한 詩畫 當代三絶로 떨쳐
48	권돈인	조선후기	阮堂과 더불어 雙璧 權閣體의 創始者로
49	김정희	조선후기	弱冠에 百家의 書 貫通 天下의 阮堂으로 君臨
50	이하응	조선후기	詩文書畫 모두가 傑出 特히 蘭에 淸妙한 天機

1차 선정 때는 통일신라 5명, 고려 10명, 조선초기 23명, 조선중기 6명, 조선후기 6명을 합하여 모두 50명을 실었다. 이 50명은 처음에 신문사로부터 부탁받은 인원이므로 일증이 가장 중히 여기는 작가였을 것이다. 여기에는 『槿域書畫徵』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이 7명(이색, 길재, 원천석, 황희, 김종서, 김상헌, 송시열)이 나 된다. 이 인물들은 일증이 제시한 5가지 기준(서예의 명가, 도학, 문장, 절의, 훈업)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이를 밝히는 것은 일증의 서예관과 『槿域書譜』의 정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1.2 2차 선정(50명)

번호	성명	시대	전체 글에 대한 표제어
1	태 조	조선초기	奇偉 將大한 天姿 威化回軍으로 兵馬實權
2	문 종	조선초기	詩·글에 빼어난 솜씨 絶代의 奇寶로 탐내
3	세 종	조선초기	남달리 學問 좋아해 文治로 큰 事績 남겨
4	세 조	조선초기	天性이 豪邁·活動의 文武兼備 많은 治績
5	인 종	조선초기	國泰民安에 盡力 李朝賢君의 하나
6	선 조	조선중기	많은 儒生 등용 善政 大亂이겨 中興이룩
7	인 조	조선중기	反正으로 大權이어 胡亂등 在位中 술한 受難
8	효 종	조선중기	못 이룬 北伐痛恨 國力培養에 힘써
9	현 종	조선중기	大同法등 庶政革新 救恤事業으로 民生살펴
10	숙 종	조선중기	常平通寶 처음 使用 端宗復位·死六臣復官
11	영 조	조선중기	蕩平으로 黨爭止揚 奢侈등 버리고 善政피해
12	정 조	조선중기	唐宋八家文을 印行 活字 30萬字 鑄造케
13	현 종	조선후기	穀價昂騰막고 稅制改革 千歲曆·文獻備考를 刊布
14	안 지	고 려	忠厚한 性品 글 잘해 楷書 능하고 붓 잡으면 詩
15	정인지	조선초기	天姿豪邁하고 學問該博 四曹判書거쳐 領議政에
16	김시습	조선초기	세 살부터 쓴 글 神童 端宗讓位 소식 듣고 發狂
17	성 혼	조선초기	經史에 博通 行儀 뛰어난 죽은 뒤 左議政贈職
18	이 이	조선초기	學問알다 벼슬 辭退 儒道에 專心 自警文 지어
19	이제신	조선초기	風姿俊偉氣像磊落 참소로 귀양가서 죽어
20	유성룡	조선초기	退溪에게 배운 聰明博學 글쓸 땀 美보다 理達취해
21	이순신	조선중기	文章도 뛰어난 名將 雄建하며 부드러운 筆致
22	이항복	조선중기	孝友敦睦한 性品 超黨의 姿勢로 國難극복
23	신익성	조선중기	嚴毅寬豁하며 孝誠극진 才藝넘치고 精妙한 書法
24	김현성	조선중기	清雅한 성품·뛰어난 孝友 公私의 碑障은 도맡아 써
25	윤두표	조선중기	正論主張으로 憂國愛君 兵甲繕治하고 飢民救해
26	윤순거	조선중기	文章은 經傳에 本源두고 筆法은 반드시 古法따라
27	김좌명	조선중기	寢食 잊으며 軍備를 整備 筆法이 遒勁하고 寶冊써
28	김진홍	조선중기	各體로 大學을 써서 刊行 一字의 劃에 數十法까지
29	조 속	조선중기	古今の 名畫名筆을 把玩 書畫의 技는 妙에 이르러
30	남구만	조선중기	儒教 일으키고 武力獎勵 經史에 貫通 文章은 典厚
31	이 우	조선중기	典籍을 耽讀 故事에 貫通 寶冊과 公私碑額 맡아 써
32	김창협	조선중기	和氣 滿面하고 義理 깊어 聲調가 高邁 氣節이 慷慨
33	박태보	조선중기	지나치게 總名하고 剛決 精微 究極하고·奧義剖析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번호	성명	시대	전체 글에 대한 표제어
34	오태주	조선중기	居家孝友하고 行實敦睦 글씨 잘쓰되 小楷에 妙해
35	엄한봉	조선후기	草書·隸書 뛰어나게 잘써 石峰후 一人者 일컬어
36	강세황	조선후기	淡泊한 성품에 讀書 즐겨 草·篆·隸 各體에 다 神妙
37	김상숙	조선후기	功名과 毀譽 마음에 안뒤 書法은 鍾太傅 닮아
38	이인상	조선후기	篆籀 잘 쓰고 山水畫 즐겨 剛介한 人品에 妥協 몰라
39	박지원	조선후기	經世와 일을 折衷·講究 熱河日記는 뛰어난 著書
40	이덕무	조선후기	內行修潔하고 博學強記 高古한 書法에 文名 떨쳐
41	박제가	조선후기	中國名士와 交分 두텁고 奎章閣四檢書로 일컬어
42	정약용	조선후기	西學 좋아해서 洋書읽고 귀양가서도 怡然히 즐겨
43	조광진	조선후기	말없고 謙虛·謹訥한 성품 篆·隸 모두 金石의 氣보여
44	조윤형	조선후기	草石과 竹木 즐겨 그리고 붓 들면 颯然 頃刻에 다써
45	조희룡	조선후기	梅畫 좋아해 詩畫로 즐겨 蘭石畫題의 詩韻도 絶調
46	이상적	조선후기	海內外에 交遊하며 唱酬 憲宗이 그의 詩 즐겨 口誦
47	전 기	조선후기	阮堂이 絶佳·法氣라고 評 뛰어난 眼力과 筆力지녀
48	김석준	조선후기	沈靜得力하여 顔法배워 古厚한 書法에 人品風雅
49	윤용구	조선후기	世事 멀리하고 苦節지켜 詩文과 音律에 깊은 造詣
50	민영익	조선후기	刺客습격도 받은 事大派 蘭·竹 그림은 華氣가 雄建

일중은 신문사의 요청으로 다시 50명을 선발한다. 2차 선정 때는 고려 1명, 조선초기 11명, 조선중기 21명, 조선후기 17명으로 주로 조선시대의 인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차 선정 때는 국왕의 비중을 높여 쓴 것이 특징이다. 7명(태조, 세조, 효종, 현종, 숙종, 정조, 헌종)의 왕은 『槿域書畫徵』에 실려 있지 않은 인물들이고 5명(정인지, 유성룡, 이순신, 윤두표, 윤용구) 또한 『槿域書畫徵』에 기록이 없는 인물들이다. 이것은 일중이 오세창의 『槿域書畫徵』과 다른 시각으로 서예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1.3 3차 선정(50명)

번호	성명	시대	인물의 성향
1	김육진	통일신라	新羅翰林 詞翰으로 有名 行書로 쓴 鑿藏寺碑 逸品
2	한 수	고려	學識 뛰어나고 志行 밝아 辛旽 멀리하라 王에 直言

번호	성명	시대	인물의 성향
3	권 근	고 려	天資가 精粹·溫雅하고 性理學에 깊은 造詣
4	맹사성	고 려	清白·簡素한 名宰相 孝誠 지극해 朝廷에 알려
5	신 장	고 려	崇禮門扁額등 額書잘써 書體는 北波로 雄奇·古雅
6	이석형	조선초기	글잘 쓰고 技藝 또한 絶倫 유복한 晩年 詩酒로 즐겨
7	안승선	조선초기	天資英達하고 學問즐거 文詞가 週麗 書法도 逸品
8	신숙주	조선초기	訓民正音制定에 功크고 諸國語에 能通한 譯書 많아
9	이영서	조선초기	儒雅 즐기고 書史좋아해 書法에 이르러선 妙를 極
10	최 항	조선초기	사람됨이 謙謹寡言 耽學強記하고 著書 많아
11	하위지	조선초기	沈靜寡默한 集賢殿학사 節死한 死六臣의 한사람
12	이 개	조선초기	사람됨이 淸穎·茗發 淸絶한 詩文 一世에 떨쳐
13	김수온	조선초기	벼슬이 높아도 淡然寒素 雄建한 文章 書史에 能通
14	서거정	조선초기	어려서부터 英敏한 神童 筆法 뛰어나 成宗이 사랑
15	성 현	조선초기	성품 疎豁한 君子 文章은 水湧山出
16	김종직	조선초기	弱冠에 벌써 文名널리 떨쳐 많은 道學文士가 그의 門下
17	남효온	조선초기	스승 金宗直도 敬禮呼稱 警止齊銘을 만들어 自戒
18	김 정	조선초기	22세 때 文科에 壯元급제 學業精深하여 門路발라
19	이현보	조선초기	본디 성품이 強直하여「燒酒陶瓶」이라 불리워
20	조광조	조선초기	小學尊信하고 近思를 尊尙 小人輩들의 奸計로 賜死해
21	서경덕	조선초기	어려서부터 聰明剛毅하고 義가 아니면 一毫도 안해
22	최수성	조선초기	벼슬하길 권했으나 謝絶 數學에 能한 天下의 奇才
23	조 옥	조선초기	末年에는 詩 벗삼아 隱居
24	김인후	조선초기	退溪 더불어 太學에 놓고 仁宗과는 君臣떠나 親해
25	이의건	조선초기	세상 榮名 土苴같이 여겨 一時名賢이 다투어 薦舉
26	송익필	조선초기	栗谷과 더불어 義理辯論 公卿도 이와 벗하면 抗禮
27	윤근수	조선초기	淸德과 文章은 세상의 宗匠 門生많아 가는곳마다 俯伏
28	권 울	조선초기	壬辰亂 幸州大捷의 名將 宣祖도 忠勞勇略을 激讚
29	이 정	조선초기	藝는 모두하고 能했으며 특히 書는 神助와 같았다
30	이산해	조선초기	6歲부터 字體가 奇崛하여 一時名公이 글씨 얻으려와
31	조 현	조선중기	成渾도 師弟의 禮로 대접 壬辰亂때는 鄉兵모아 勇戰
32	차천로	조선중기	글을 起草하되 加筆을 얹고 一晝夜에 6百韻이나지어
33	유몽인	조선중기	成渾의 敎訓을 따랐으나 行실 浮薄하여 絶緣당해
34	이홍주	조선중기	眞草를 가장 잘 썼으며 天資가 絶高·每事毅然
35	정경세	조선중기	筆法이 端重嚴密하고 險語와 奇字를 안썼다
36	이정구	조선중기	文章四大家의 一人이며 李适의 亂땐 公州에 扈駕
37	백진남	조선중기	어려서부터 英才 있었고 詩에도 能해 家聲을 떨쳐

『權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번호	성명	시대	인물의 성향
38	김 유	조선중기	氣度嚴威 儀貌豪爽하고 항상 人才를 收拾하였다
39	조희일	조선중기	賦와 筆이 蘇趙의 赤壁과 같고 直言을 잘하여 怨仇가 많았다
40	조 익	조선중기	不正에 嚴辭痛斥했으나 待人接物엔 너그려웠다
41	김광옥	조선중기	三朝에 進退함이 고요했고 交遊함을 기뻐하지 않았다
42	윤신지	조선중기	書畫工程이 자못 깊었고 才韻이 또한 殊遜하였다
43	김광현	조선중기	平生交遊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마음을 自身에 쓰지 않으려하였다
44	오 준	조선중기	그의 書體를 많이 본받고 이 體를 竹南體라 일컬어
45	김수항	조선후기	뜻을 性理讀書에 두고 數年 場屋에 不就했다
46	이 재	조선후기	사람됨이 淸粹英睿하고 進取에 뜻 없어 벼슬사양
47	송문흠	조선후기	隸書에 能하고 筆法도 精工 英祖癸丑에 進士로 官界에
48	신관호	조선후기	隸書에 철저한 氣像 흐르고 金石의 一學으로 門戶이뤄
49	김병주	조선후기	士類의 公議를 존중하고 公事가 아니면 門안나서
50	정학교	조선후기	光化門의 額字를 썼으며 4書體가 妙境에 이르러

재계약에 이어 다시 신문사의 요청으로 다시 50명을 더 선발하여 글을 쓰게 된다. 이때는 통일신라 1명, 고려 4명, 조선초기 25명, 조선중기 14명, 조선후기 6명이 추가된다. 이때 역시 『權域書畫徵』에 없는 인물들이 추가되는데, 1, 2차 선정 때보다 더 많은 인물들이 일중에 의해 선정된다. 3차 선정 때 일중의 『權域書譜』에 추가한 인물은 15명(맹사성, 신숙주, 최항, 하위지, 김수은, 성현, 남효은, 이현보, 조광조, 서경덕, 권율, 조헌, 이정구, 이수항, 김병주)이다. 여기에 추가된 인물 또한 ‘절의’에 관계되는 인물이 많다.

3.2 추가된 인물선정

『權域書譜』에는 『權域書畫徵』에 나오지 않는 인물 34인이 추가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이것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인물을 기록하고, 이들의 신분과 인물의 성향을 고찰하려고 한다. 인물의 성향에 대해서는 일중이 『權域書譜』에서 제시한 5가지 기준(서예의 명가, 도학, 문장, 절의, 훈업)에 따라 분류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개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비중이

큰 것을 선정하였다.⁴⁾ 이를 통해 일종의 인물선정기준과 서예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1 1차 선정 때 추가된 인물(7인)

번호	작가	시대	신분	인물의 성향
1	이 색	고려	사대부	절의
2	길 재	고려	사대부	절의
3	원천석	조선초기	사대부	절의
4	황 희	조선초기	사대부	절의
5	김중서	조선초기	장군	절의
6	김상헌	조선중기	사대부	절의
7	송시열	조선중기	사대부	도학, 절의

3.2.2 2차 선정 때 추가된 인물(12인)

번호	작가	시대	신분	인물의 성향
1	태조	조선초기	국왕	훈업
2	세조	조선초기	국왕	훈업
3	효종	조선중기	국왕	훈업
4	현종	조선중기	국왕	훈업
5	숙종	조선중기	국왕	훈업
6	정조	조선중기	국왕	훈업
7	현종	조선후기	국왕	훈업
8	정인지	조선초기	사대부	훈업
9	유성룡	조선초기	사대부	훈업
10	이순신	조선중기	장군	절의, 훈업
11	윤두표	조선중기	사대부	훈업
12	윤용구	조선후기	사대부	절의

4) 일종의 인물선정기준(서예의 명가, 도학, 문장, 절의, 훈업)을 가지고 인물의 성향을 분류한 것은 역사학을 전공한 이성배 선생의 견해를 많이 참고하였다.

3.2.3 3차 선정 때 추가된 인물(15인)

번호	작가	시대	신분	인물의 성향
1	맹사성	조선초기	사대부	절의
2	신숙주	조선초기	사대부	훈업
3	최 항	조선초기	사대부	훈업
4	하위지	조선초기	사대부	절의
5	김수은	조선초기	사대부	문장
6	성 현	조선초기	사대부	문장
7	남효온	조선초기	사대부	절의
8	이현보	조선초기	사대부	문장
9	조광조	조선초기	사대부	도학
10	서경덕	조선초기	사대부	도학
11	권 울	조선초기	장 군	절의
12	조 현	조선중기	장 군	절의
13	이정구	조선중기	사대부	문장
14	김수항	조선후기	사대부	명가
15	김병주	조선후기	사대부	명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權域書譜』에는 1차 선정 때 7명, 2차 선정 때 12명, 3차 선정 때 15명이 추가되어 『權域書畫徵』에 없는 인물이 총 34명이나 된다. 이렇게 『權域書畫徵』에 없는 인물을 추가로 선정한 것은 관점의 차별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욱이 『權域書畫徵』이 차지하는 권위를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한다. 『權域書畫徵』에는 신라시대의 술거에서 이 책이 발간되지 직전에 타계한 丁大有(1852~1927)와 羅壽淵(1861~1926)에 이르기 까지 모두 1,117명(서예가 391·화가 576·서화겸비 149)의 우리나라의 역대 서화가들의 인적사항과 활동 및 능했던 분야에 대한 기록이 집성되어 있다. 『權域書畫徵』은 역사서나 문집에 실린 글을 발췌한 것으로 서화인명대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며, 서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거쳐야 할 소중한 책이다. 그런데도 『權域書畫徵』을 모두 따르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주관적으로 삽입한 것은 일종의 독자적인 서예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3.3 추가된 인물의 특징

앞서 밝혔듯이, 『槿域書譜』의 인물선정기준은 서예의 명가, 도학, 문장, 절의, 훈업이다. 새로 추가한 인물 34인 중에는 ‘節義’에 속하는 인물이 가장 많다. 특히 1차 선정 50명 중에서 『槿域書畫徵』에 나오지 않는 7인(이색, 길재, 원천석, 황희, 김중서, 김상헌, 송시열)은 모두 ‘절의’와 관계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행적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牧隱 李穡은 새 왕조에 참여하기를 권하는 이성계를 거절하고 ‘절의’를 지킨 고려 말 三隱 가운데 한 사람이다. 治隱 吉再는 ‘孝子 吉再’이자 ‘忠臣 吉再’였다. 이 시기의 군주와 관료는 길재의 행실 가운데 ‘不事二君’의 忠節을 강조하였고, 충절을 실천할 수 있었던 바탕으로 그의 孝行을 주목하였다.⁵⁾ 이들은 圃隱 鄭夢周와 함께 三隱이라 하여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불리어지고 있다. 元天錫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되는 시기를 살다간 사람이다. 그는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왕조교체기에 은나라에 끝까지 ‘절의’를 지킨 백이 숙제와 같이 조선 역사에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고려말에 정치가 문란해지자 이를 개탄하면서 치악산에 들어가 숨어버렸다. 조선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선생에게 벼슬이 주어졌으나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지 않았다.⁶⁾ 金宗瑞는 그의 雅號 ‘節齋’가 주는 이미지처럼 절의를 지킨 인물로 유명하다. 文宗의 유언을 받아서 어린 임금(端宗)을 지키려다 수양대군의 계략으로 참변을 당하였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의연한 충절의 정신을 남겼다.⁷⁾ 黃喜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즈음 식견이 좁은 선비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내불당을 지으려 하여 집현전 학사들이 불같이 반대를 할 때에도, 또 천첩 소생들에게 비친한 일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리려 하여 양반들이 반발할 때에도 세종을 돕고 세종을 이해하고 감쌌

5) 金動植, “15세기 朝家の 吉再 追崇과 인식,” 『民族文化論叢(경북: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제50집(2014), 229.

6) 김인숙 외, “耘谷 元天錫의 삶과 얼을 찾아서,” 『강원문화연구(강원도: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제26집(2007), 120.

7) 이덕일, 『김중서와 조선의 눈물』 (서울: 도서출판 옥당, 2011), 316-318.

다.⁸⁾ 金尙憲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義理다. 이는 심양에서의 獄苦에도 불구하고 淸에 굴하지 않은 그의 절의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그래서 김상헌을 의리의 대명사인 伯夷, 蘇武, 文天祥 등에 견준다.⁹⁾ 김상헌은 병조호란(1636) 당시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 淸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결사항전을 주장하였던 주전파의 수장이었다. 김상헌은 6년 동안 청나라에 있으면서 끝내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청 황제의 석방 명령에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拜禮를 하지 않았던 절개는 청대인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다.¹⁰⁾ 이와 같이 『權域書譜』 1차 선정에 추가된 7명의 인물은 모두 ‘절의’와 관계가 깊다. 이렇게 『權域書譜』에서 ‘절의’와 관계되는 인물을 1차 선정에서 특별히 추가한 것은 분명 일종의 서예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2차 선정 때는 국왕을 중심으로 ‘훈업’이 있는 인물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절의’로 이름 높은 李舜臣과 尹用求를 추가했다. 이순신을 포함시킨 것은 분명 그의 ‘충절’의 정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일중은 『權域書譜』에서 “文臣의 글만 못한 바 없고, 글씨 또한 雄建한 속에 부드러운 맛이 풍겨 公의 人格을 그대로 비쳐준다 하리라”고 하여 名將으로서의 이순신은 서예에서도 뛰어난 품격을 지녔음을 상찬하고 있다. 尹用求是 이조참의, 도승지 등 요직을 지냈으며, ‘을미사변’ 후 요직에 임명되었지만 취임하지 않고,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書畫에 전념했다. 그는 1910년 일제의 작위를 거절한 사람으로 서풍 또한 忠義烈士다운 글씨를 썼다. 시문은 물론이고 그림과 글씨에 두루 능한 인물이었다. 윤용구는 일중의 소년시절 그가 서예의 길을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¹¹⁾ 일중의

8) 황영선, 『황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국학자료원, 1998), 164-165.

9) 黃萬起, “淸陰 金尙憲 詩文學에 나타난 義理精神,”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3.

10) 유준영, “김수증의 은둔사상,” 『권력과 은둔』 (서울: 북코리아, 2010), 128.

11) 윤용구는 순조의 셋째 딸 德溫公主와 순조의 막내부마 尹宜善의 슬하에서 나온 아들이다. 따라서 윤용구는 순조의 둘째 딸 복은공주를 5대조 할머니로 둔 일중선생의 집안과 먼 일가친척지간이 된다. 윤용구는 1853년에 태어나 1939년에 별세했고, 일중은 1921년에 태어나 2006년 별세했다. 일중의 출생연대로 본다면 소년시절에 윤용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숙부 김순동은 윤용구의 글씨를 대필할 정도의 수제자였다. 김순동의 글씨는 스승 윤용구의 서풍을 이어받아 기상이 빼어났는데, 충의열사였던 남송의 문천상이나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연상할 정도로 기백이 넘쳤다. 일중 또한 윤용구의 영향을 받았다. 어렸을 때 일중은 숙부 김순동을 따라 윤용구의 집을 출입하였고, 윤용구로부터 추사 이래로 전해지는 서법정전을 전수 받는다.¹²⁾

3차 선정 때 또한 ‘절의’의 인물이 5명 포함되어 있다. 孟思誠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국왕 앞에서도 간언을 서슴치 않았다. 『태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되자 세종이 한번 보고자 하였다. 그러자 그가 “왕이 실록을 보고 고치면 반드시 후세에 이를 본받게 되어 사관(史官)이 두려워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반대하니 세종이 이에 따랐다.¹³⁾ 河緯地는 단종 복위에 힘쓰다가 목숨을 잃은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성품이 강직하여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1456년 성삼문·박팽년·이개·유성원·유응부 등과 함께 비밀리에 단종 복위를 추진하여 명의 사신을 위해 배푸는 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기로 했으나 발각되어 주모자로 체포, 죽임을 당했다. 1456년(세조 2) 司藝 金磧의 고변으로 단종복위운동이 탄로나 鞫問을 받게 되었다. 국문을 받으면서도 “이미 나에게 반역의 죄명을 씌웠으니 그 죄는 마땅히 誅殺하면 될 텐데, 다시 무엇을 묻겠단 말이오.”라며 기개를 굽히지 않았다.¹⁴⁾ 南孝溫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한 단종복위운동 실패 이후 관직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절개를 지킨 생육신 6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朴彭年·成三問·河緯地·李塏·柳誠源·俞應孚 등 死六臣의 절의를 추모하고, 그들의 충절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음을 염려하여 『六臣傳』을 저술하는 등 당시의 금기사항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壬辰倭亂 때 鄉兵을 모아 勇戰을 펼쳤던 趙憲과 임진왜란 때 幸州大捷의 명장 權慄 또한 ‘절의’에 해당된다. 이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忠節을 불태운 名將들이었다. 추가 인물 34인 중에 장군을 4명(김중서, 이순신, 권율, 조헌)을 포함시킨 것 또한 『槿域書譜』의 특징이다. 이들은 모두 『槿域書畫徵』에 기록이 없는 인물들이다.

12) 최완수, “石峯·秋史 잇는 조선후기 書脈의 적손,” 『藝에 살다』 (서울: 범우사, 2000), 310.

13) 『세종실록』 권 51, 세종 13년 3월 갑신조.

14) 김진우, 『死六臣의 眞實』 (서울: 통천문화사, 2011), 34-37.

이와 같이 인물선정에 있어 ‘절의’와 관계되는 인물이 많은 것은 일종의 가계 및 성장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위에 소개한 인물 중에서 조선시대 ‘절의’의 상징적인 인물로 전해지는 김상헌은 일종의 14대조로서 일중가문의 가학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김상헌은 절의·시문·서예·전각·그림·금석·한글가사 문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김상헌이 후손들에게 준 대표적인 정신은 ‘절의’였다. 그의 정신은 멀리 金奭鑣(1843~1910)에게로 이어졌다. 일종의 증조부 金奭鑣(1843~1910)은 고종 때 형조판서를 지냈다. 그는 을사조약을 적극 반대하였고, 나라를 팔아먹은 五賊을 처단할 것을 내용으로 한 상소문을 올렸으나 상소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김석진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잠시 楊根(현 화양리)으로 이사를 했다가 1907년 오현의 창녕위궁 묘막으로 들어간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자 조선조 고관들에 대한 유회책으로 작위와 은사금을 주었다.¹⁵⁾ 김석진에게도 男爵의 작위가 주어졌으나 김석진은 이를 거절하고 합방에 대한 통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다.¹⁶⁾ 김석진은 한일합방 후 가장 먼저 순국한 인물이었다.¹⁷⁾

아들 金甯漢(1878~1950) 또한 김석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김영한은 양주군수와 양근군수를 거쳐 秘書院丞이라는 벼슬을 지냈다. 일제는 김석진이 거절한 작위를 아들 김영한에게 다시 강요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가 권속을 이끌고 도봉구 변동 오현으로 피신한다. 그 후 일본경찰들이 집으로 몰려와 그에게 충구를 들이대는데도 끝까지 일본경찰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10년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집안의 큰 사건이 있던 지 11년 후 일중선생이

15) 이덕일, 『살아있는 한국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3), 323-324.

후작은 15만원, 백작은 10만원, 자작은 5만원, 남작은 2만 5천원, 조선 왕실의 친인척은 공작으로 이보다 더 많은 50만원 이상의 돈을 받기도 했다. 당시 男爵에게 주었던 2만 5천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10억이 훨씬 넘는 거액에 해당한다. 작위대상자는 76명이다. 그중에서 8명이 작위를 거절했다. 당시 작위를 받지 않는 것은 벼슬과 재산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제의 감시대상자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했다.

16) 1910년 8월 29일 韓日合邦條約을 공포하고 大韓帝國을 朝鮮으로 개칭하고 朝鮮總督府를 설치한다. 이후 김석진은 직위를 사퇴하고 亡國의恨과 불굴의 뜻을 품은 채 동년 10월 11일 음독자살하니 享年그때가 68세였다(김충현, 『梧泉實紀』 (서울: 保景文化史, 1990), 4).

17) 이만열 엮음, 『韓國史年表』 (서울: 역민사, 1996), 198.

태어난다. 김통년에 의하면, 일종의 조부가 이끌었던 家學 중에서 ‘節義’는 핵심 과목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¹⁸⁾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槿域書譜』의 인물 선정 기준에는 ‘절의’를 중시했던 일중가의 분위기가 다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맺는말

『槿域書譜』는 서예가 일중 김충현이 한국서예의 명가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쓴 최초의 장편칼럼이다. 무려 150회의 글을 신문에 연재한 것은 한국서예사상 초유의 일로서 가히 기록적이라 할 만하다. 신아일보에 실린 『槿域書譜』를 보면 활자도 적고, 글의 내용도 어려우며 한자가 많아 소통성이 떨어져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시각일 수 있다. 당시 67년에 신문지상에 소개된 『槿域書譜』는 처음에 50회를 신기로 했는데 두 번씩 연장하여 150회나 실릴 정도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본자는 올 3월에 『槿域書譜』를 가족으로부터 입수한 후 여러 관련 자료들과 대조하면서 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다. 연구를 통해 『槿域書譜』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오세창의 『槿域書畫徵』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중의 글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槿域書畫徵』을 『槿域書譜』의 인용문과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고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자료를 비교한 결과 『槿域書畫徵』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槿域書畫徵』의 인용과 『槿域書畫徵』 외의 인용 두 가지로 나누어 인용문의 정확한 출처를 밝혔다.

작가의 선정 또한 『槿域書畫徵』을 모두 따르지 않고 주관적으로 선정하였음을

18) 김통년은 일중 김충현의 조카다. 그는 중학교때까지 오현에서 증조부를 중심으로 4대가 함께 살았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일중가는 ‘절의’를 매우 중시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7월 7일 서울 김단희의 오피스텔에서 김통년과의 인터뷰.

『槿域書譜』 인용문의 출처빈도와 인물선정기준에 대한 고찰

알 수 있었다. 150명 중에서 34명은 『槿域書畫徵』에 없는 작가로서 일중이 직접 선정한 인물임을 밝혔다. 그런 점에서 『槿域書譜』는 일중의 독창적인 서예관을 반영하고 있다. 『槿域書譜』는 신문의 독자를 상대로 한 대중적인 글이지만, 다양한 문헌을 인용하면서 학술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 또한 『槿域書譜』가 갖는 하나의 큰 특징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인물선정의 기준에 대해 고찰했다. 150명 중에서 116명은 『槿域書畫徵』에 나오는 인물이고 나머지 34명은 『槿域書畫徵』에 나오지 않는 추가된 인물이다. 일중의 인물선정기준은 서예의 명가, 도학, 문장, 절의, 훈업이다. 이는 일중의 서예관과 『槿域書譜』의 성격을 이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34명의 인물 중에는 ‘節義’에 속하는 인물이 가장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절의’에 속하는 인물들의 행적과 함께 이것이 일중의 성장과정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槿域書譜』에서 선정한 150명의 작가를 보면 서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槿域書譜』를 통해 일중의 예술이 폭넓은 學養의 바탕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내년엔 일중기념사업회에서 『槿域書譜』 해제본이 발행된다. 이는 부족한 한국서예사를 보완해주고, 문인서예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권 51, 세종 13년 3월 갑신조.

金基昇. 『韓國書藝史』. 서울: 대성출판사, 1966.

金忠顯. 『藝에 살다』. 서울: 범우사, 2000.

金忠顯. 『梧泉實紀』. 서울: 保景文化史, 1990.

金勳埴. “15세기 朝家の 吉再 追崇과 인식.” 『民族文化論叢』 제50집(2014).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김숙년. 『아버지 유채꽃이 참 고와요』. 서울: 삶과 꿈, 1995.
- 김인숙 외. “耘谷 元天錫의 삶과 얼을 찾아서.” 『강원문화연구』 제26집(2007).
- 김진우. 『死六臣의 眞實』. 서울: 통천문화사, 2011.
- 吳世昌. 『국역 근역서화징』. 서울: 시공사, 1998.
- 吳世昌. 『槿域書畫徵』.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1994.
- 유준영 외. 『권력과 은둔』. 서울: 북코리아, 2010.
- 이덕일. 『김중서와 조선의 눈물』. 서울: 도서출판 옥당, 2011.
- 이덕일. 『살아있는 한국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3.
- 이만열 엮음. 『韓國史年表』. 서울: 역민사, 1996.
- 李佑成 외. 『牧隱 李穡의 生涯와 思想』. 서울: 일조각, 1996.
- 黃萬起. “淸陰 金尙憲 詩文學에 나타난 義理精神.”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 황영선. 『황희의 생애와 사상』. 서울: 국학자료원, 1998.